

“신혼 아내에 당선의 영광을”

‘입양아 출신’ 훈영합굿 美 미시간주 하원 3선



한국인 입양아 출신의 훈영합굿(32·한국명 정훈영)이 7일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 미시간주 하원의원에 세 번째로 내리 당선됐다.

훈영씨는 1974년 12월 인천에서 태어난지 얼마 안돼 인천 소재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1976년 미국인 부모에 입양됐으며, 미시간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민주당 하원 정책 보좌관 등으로 활동하다 지난 2002년 미시간주 사상 첫 하원

하원의원이 됐다.

그는 “의원으로서 책무도 하면서 선거 운동까지 하느라 사실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아내를 비롯한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한인 사회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덕택에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87%의 놀라운 득표율로 공화당의 벤 암스트롱 등 경쟁자들을 쉽게 물리쳤다.

그는 부인 정선화(31·사진 왼쪽)씨가 선거 사무실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로 열심히 뛰어주었다면서 영광을 정씨에게 돌렸다.

태진아 부자, 日 디너쇼 기금 2천만원 전달

오사카 한인 商議會



태진아·이루 부자가 일본 오사카 한인상공 회의소에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

태진아·이루 부자는 7일 오후 6시 일본 오사카 리가로텔 호텔 코린노마홀에서 오사카 한인상공회의소 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 디너쇼를 성공적으로 펼쳤다.

부자는 이날 공연으로 얻은 수익금 2천만 원을 오사카 한인상공회의소 김우삼 회장에게 전달했다.

태진아·이루 부자가 합동 공연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 태진아는 ‘사람은 아무나 하나’ ‘동반자’ ‘아줌마’ ‘울경이’ 등을, 이루는 ‘까만 안경’ ‘다시 태어나니’ ‘여기나’ ‘하우 딥 이즈 유어 러브(How deep is your love)’ 등 히트곡을 열창했다.

태진아는 ‘사모곡’을 부르며 팬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고, 이는 2집에서 리메이크한 ‘울경이’의 발라드 버전을 객석과 함께 합창했다.

동강대 ‘생활 사진·영상·디자인전’ 개최



동강대 생활복지홍보과(과장 정수영 교수)는 9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서 ‘생활 사진·영상·디자인전’을 개최했다. 올해로 12회째인 이번 전시회에는 교수·학생들의 사진·영상·디자인 작품 60여 점이 전시됐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 강성환씨 장남 형구(해남경찰서)군 이주열(해남군청)씨 장녀 윤정(해남 장애인복지관)양=11일(토) 오전 11시 40분 해남군 해남읍 동아웨딩홀.

▲ 김남일(광주시의원)씨 차남 상훈군 이남규씨 장녀 은주양=11일(토) 낮 12시 무등파크호텔 디아이 몬드홀.

▲ 정종주(대한교육사 상무)씨 장남 남호군 김점수씨 차녀 송윤양=11일(토) 오후 1시 30분 버깅컴웨딩홀 2층 크리스탈홀.

▲ 박근옥씨 장남 진관군 임영락씨 막내 청옥양=11일(토) 오후 1시 50분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 윤영기(광양만관 경제자유구역 행정개발본부장)씨 장남 주호군 안진섭(주식회사 장호 사장)씨 팔

나영양=11일(토) 오후 2시 30분 에벌루션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 김영철씨 장남 병렬(최의의사·고려대 안산병원)군 김민재(전남공고·광주펜싱협회 상임부회장)씨 차녀 지연(기업은행 연희동지점)양=11일(토) 오후 5시 서울 규수당웨딩홀 3층 아치홀.

▲ 오병면(광주통상 대표)씨 차남 청성군 황성칠씨 장녀 수진양=12일(일) 낮 12시 40분 이화웨딩캐슬 2층 행복홀.

▲ 이동주(전 광주은행 본부장)씨 차남 석현군 이동명씨 장녀 천옥양=25일(토) 낮 12시 서울시 대치동 섬유센터 17층 예식홀, 피로연 12일(일) 오후 5시 백운동 프리도호텔 3층 크리스탈홀.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부 무료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363-2240

▲ 광주시 가정위탁지원센터=아

권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국번 없이 1331

▲ 변호사 공제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사무실 229-2100

▲ 비둘기기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939@dreamwiz.com

▲ (사)아이주기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부 무료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363-2240

▲ 광주시 가정위탁지원센터=아

동위탁 및 위탁 가정 상담, 351-1206, 1207

동창·동문회

▲ 광주 동신고 17회 동창회(회장 손경수)=졸업 20주년 기념행사=11일(토) 오후 6시 마스터즈 관광호텔. 011-604-9390

▲ 금파공고 첨단 동문(회장 김성준)=월례회=11일(토) 오후 4시 청정회도리. 011-627-9316

▲ 일곡중 31회 동창회=12일(일) 오전 10시 모교 체육관. 011-633-8731

▲ 대충중 총동문회(회장 김운기)=정기총회 및 체육대회=12일(일) 오전 9시 대충중 교정. 011-9457-7557

▲ 북이 사거리 초교 제 48회 동창회=13일(월) 오후 7시 30분 남면 장미가든. 061-392-6260

▲ 광주언론인회 월례회=16일(목) 낮 12시 신성식당. 232-0176

▲ 광운대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모교 방문의 날 행사=18일(토) 오후 2시 30분 광운대 중앙도서관·노천극장. 02-940-5397~8

모임

▲ 광주언론인회 월례회=16일(목) 낮 12시 신성식당. 232-0176

종친회

▲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도지원 영암군분원(분원장 리성규)=정기총회=11일(토) 오전 11시 영암동마식당.

▲ 남양양씨 대종회(회장 송동휴)=임시총회=15일(수) 오전 10시 고흥군 동강면 남양양씨 대종회 보청사무소. 011-633-3354

모집

▲ 총신대 사회교육원 국제멀티테라피 교육센터 수강생 모집=중국 북경중의약대 단기연수 및 국가자

“실버 고용’ 감사… 빅시티에 1억원 투자

고용업체에 報恩의 투자 광주 70대 김수부씨

“70대 노인을 고용해 준 것이 고마워서 투자하는 겁니다”

김수부(74·광주시 남구 월산동)씨는 최근 빅마트에 1억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

3년간 주차 도우미 일을 하며 모은 돈, 저금해둔 퇴직금 등을 합한 자신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돈을 내놓았는데, 그 이유가 남다르다.

주차 도우미로 고용, 일자리를 준 것에 여간 고마워하는 것이다.

김씨는 유동업체 빅마트의 주차 도우미다. 빅마트가 ‘실버고용’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60세 이상 주차도우미로 일하면서 빅마트에 대한 믿음이 생겨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지난 98년 초등학교 교사를 정년퇴직하고, 소일거리 찾던 중 빅마트 주

차장을 관리하는 노인 주차도우미로 취직했다.

빅마트로부터 받은 월급은 45만원. 70대 노인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이렇게 3년간 돈을 모았다는 여기에 그동안 저금해둔 퇴직금을 합쳐 빅마트에 1억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한 것.

김 할아버지는 빅마트가 지난 8일 자산 유동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본점인 빅시티(남구 진월동) 일반 분양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이같은 뜻을 회사측에 전달했다.

김씨는 “홀대받기 쉬운 노인들에게 일감을 준데 대해 고맙고 3년간 주차 도우미로 일하면서 빅마트에 대한 믿음을 생겨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한편 빅마트는 지난 4월 오픈한 빅

과 복지를 보장하는 곳이 많다”면서 “상아탑에 만 있었던 구직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팀장은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은 광주의 경우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구직 정보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9월 말 현재 광주의 청소년 실업률은 10.5%로 전국 7.5%를 크게 웃돌고 있다. ‘교육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대학을 졸업한 고인력은 많지만, 기업이 절대로 부족해 나타난 현상이다.

노동청은 이번 페스티벌의 목표를 구인·구직 알선보다는 정확한 취업시장 정보 전달에 무게를 뒀다고 한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전국 112개 기업을 섭외해,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았다.

또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취업난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하려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행사명칭을 위해 익숙한 ‘취업박람회’ 대신 ‘페스티벌’이라고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페스티벌 전체 예산의 10%인 500만원을 ‘취업클럽’·‘취업정보 사냥대회’·‘Job Festival 퀴즈’ 등 경연대회 상금에 배정했다.

제7회 ‘맞춤형 페스티벌’ 개최 추진

송 팀장은 ‘Job Festival’을 테마별로 구성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장애인과 대학생, 노인 등 각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취업은 결코 바늘구멍이 아닙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체계적이고 꾸준한 준비를 한다



면 틀림없이 원하는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취업에 목말라하는 것처럼, 기업들도 인재를 찾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생명 구하는 보람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광주 남부 소방서 송영석 소방사



광주·전남 첫 ‘최강 소방관’ 선정

대한민국 최고의 소방관을 뽑는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20대 소방관이 광주·전남 최초로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남부소방서 119구조대 송영석(28) 지방 소방사는 지난달 충남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기록, 최강 소방관으로 선정됐다.

대회는 전국에 있는 2만5천여명의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장비 운반, 구조활동 등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활동과 관련된 기능을 심사해 송 소방사는 장비 특성이 가장 우수한 3명을 ‘최강 소방관’으로 선정했다.

지방 소방서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송 소방사의 1위는 더욱 의미가 크다는 것이 광주시 소방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강 소방관에 선정되면 1계급 특진하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송 소방사는 지방 소방서에서 지방 소방교로 1계급 특진하는 영예를 누리게 됐다.

송 소방사는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15~30kg에 이르는 장비를 작용하고 고층 계단을 뛰어 올라가야 하는 등 어려움도 많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순간의 보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광주 출신 주기운 시인

‘해동문학상’ 대상 수상



광주 출신 주기운(78·사진) 시인이 제7회 해동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해동문학상 심사는 위원회는 “올초 발간된 시선집 ‘저주는 간이역’(시문학 폐막)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진정한 내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천착을 통해 자아의 재발견을 보여줘 주제를 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김성산 금호고속 사장